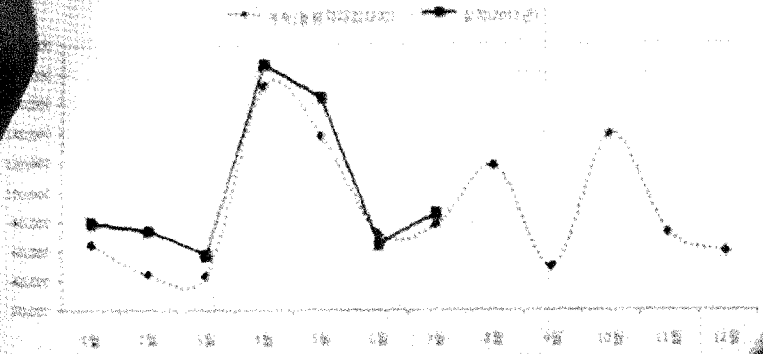


# 고객 100만

100만명 달성 목표 달한 과학관 방문객 현황

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계
방문객	46,377	64,755	17,340	10,137	11,507	72,507	117,177	42,827	146,014	77,096	54,209	1,064,799	1,000,000
방문객	30,397	41,831	10,046	10,715	68,560	66,863							



“업그레이드된 중앙과학관,  
세계 일류 과학관으로 거듭날 것”

글 김요셉 대덕넷 기자 joesmy@hellod.com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 꿈나무들의 미래가 변하듯 이제는 대중의 과학화도 과학 전시품만 가지고 논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과학체험에도 ‘몰입’이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보고 만지는 맛 못지않게 ‘몰입을 통해 과학을 체험하는 맛’이 중요해진 것이다.

“컨셉 자체가 다르다. 몰입체험형 과학관 형태의 과학관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새로운 과학관 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와서 과학체험에 몰입해 보라.”

이은우 국립중앙과학관장의 목소리가 힘차다. 마치 과학기술 대중화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한때 구식 과학전시품의 대명사였던 중앙과학관이 최근 신개념의 과학체험관 ‘창의나래관’을 개관하면서 과학 대중화의 환골탈태를 부르짖고 있다. 이 관장은 창의나래관을 ‘과학도시 대전의 새로운 명물’이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창의나래관 한번 가봤나”는 질문을 뜬금없이 던진다. 과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자신이 생긴 덕분이다.

### 미래 과학체험형으로 갈아입은 ‘중앙과학관’

4차원 영상관에서 바람을 맞으며 스틸을 느껴봤는가? 요리조리 레이저를 피해 가장 빠르게 탈출해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 관장은 창의나래관에 대한 자량을 늘어놓는다. 그는 “각 코너마다 보고 만지는 수준의 과학체험을 뛰어 넘어 오락게임을 하듯 체험객들이 몰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전시품 선정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들로 배치했다. 그 중에 레이저쇼가 인기다. 007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레이저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레이저 광선을 건드리면 실격이고 가장 빨리 나오는 순서로 경쟁하는 레이저 게임에 학생들은 마냥 즐거워한다. 반사·굴절·전반사 등 다양한 레이저 현상을 특수장치를 통해 보여주고, 직접 레이저로 종이를 태우고 풍선도 터지게 하는 실험도 체험하게 한다.

미디어 월도 눈길을 끈다. 세로 2m 가로 10m에 이르는 대형 스크린을 아이들이 스마트폰터치스크린을 만지듯 팔을 벌려 이리저리 영상을 선택한다. 영화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그룹별 게임을 할 수도 있다. 게임 소프트웨어만 바뀌주면 얼마든지 다양한 IT 대형스크린 체험을 할 수 있다.

4차원 라이더도 최고의 인기 코너다. 로켓 달린 보드를 타고 다른 로봇들과 경주를 펼치는 4차원 영상 체험은 현기증이 날 정도다. 경주를 하다가 바람에 스치고, 좌석이 이리저리 요동친다.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어 나만의 아바타를 만드는 가상 놀이터 체험을 비롯해 벼락과 함께 하는 전기쇼, 모션캡처, 3차원 지진 시뮬레이터 등 몰입

형 과학체험 코너들이 즐비하다.

코너별 설명방식도 달라졌다. 각 코너마다 전문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배치돼 있다. 전문 과학지식을 가지고 방문객들과 소통하는 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들이다. 창의나래관은 전문적 소통기술이 있어야 운영된다.

창의나래관 3층에는 칠보·염색 공방과 6개의 테마별 워크스테이션이 전문 업체들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 직접 칠보를 만들고, 염색해 보고, 천연기념물 맹금류 ‘황초롱’을 만들어 날려 보낼 수 있다.

이 관장은 “두달 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금방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벌써부터 창의나래관 인기가 좋다”며 “올해에는 무료지만 내년부터 유료화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료화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니 입장료는 대략 3천~5천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 “年 고객 100만 명 시대 열 것”

“현 추세라면 올해 100만 명은 족히 넘을 것이다. 과학관 개관 이래 연간 100만 명의 방문객이 중앙과학관을 찾은 적은 지난 1993년 대전 엑스포 시절 이후 처음이다.”

이 관장은 스스로를 과학고객 창출 CEO로 자임한다. 보험회사 게시판에 성과지표 도표들이 도배돼 있는 것처럼 과학관장실에는 ‘고객 100만 명 시대를 열자’라는 케치프레이즈 아래 관람인원 월별 현황표, 전시관 월별 고객창출 현황표 등의 실적도표가 붙어 있다.

이 관장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고객창출협력과를 신설해 과학관의 마케팅 활동에 주력해 왔다. “서울시, 제주도 이외에 전국 교육감님들을 모조리 찾아다녔다. 찾아가서 과학관이 뭘하고 있는지 알리고 아이들



을 많이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다. 그 노력의 대가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 이 관장은 주로 교육감을 만나고, 과학관 고객창출협력과 직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관·장학사들을 만나 과학관 전방위 홍보전을 펼쳤다.

과학관 관람객 현황은 지난 2007년 85만 명에 이어 2009년 99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기는 듯했으나 지난해 88만 명으로 다시 내려 앉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2만5천 명이 과학관을 다녀가 연말까지 무난히 100만 명 달성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125만 명이다. 지난 엑스포 시절 130만 명 돌파 이후 100만 명을 넘은 적이 없었던 터라 과학관 입장에서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도약의 상징이다.

이 관장은 “지난 3월 대전·충남·충북교육감과 과학관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대전 오월드와 함께 공동 마케팅 협약을 맺고 입장권 할인 제휴와 행사제휴를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과학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 서울과학관 서울북부로 이전, 과천과학관 법인화 추진

“올 연말이면 전국에 과학관이 100여 곳이 된다. 현재 과학관 협회 회원기관은 89곳이고, 최근 8개 기관이 신규

가입 참여의사를 밝혀와 현장 실사 중에 있다. 올 연말까지는 가입기관이 모두 97곳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장은 곧 도래할 전국 과학관 100곳 시대를 예고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관 운영 전망을 설명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는 과천과학관의 법인화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국회 법안 통과를 추진하다 실패한 후 올해 정기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 중이다. 조만간 완공될 광주과학관과 대구과학관도 출발부터 과천과학관처럼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과학관의 경우 과천과학관이 수도권에 생겨 현 위치에서 서울북부쪽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과학관 이전 문제는 서울시와 공동 추진 중이다.

이 관장은 “우리나라 과학관은 모두 독립법인화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당분간 중앙과학관은 국립으로 정부 차원에서 육성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과학관이 국립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이 관장은 그 이유로 과학관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을 꼽았다. 전체 과학관 인프라 기반조성을 위해 과학해설사를 양성하고 전문 과학전시인력을 키워내야 하는 역할을 중앙과학관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과학관은 자연사라든지 거례과학, 전시물 자

체 연구 기능 등 과학관이 법인화될 경우 수행하기 힘든 영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 관장은 강조했다. 그는 “중앙과학관의 연구기능에 대한 결과물을 전국 각지에 포진한 과학관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앙과학관의 전문 연구노하우를 전파해 각 과학관들의 전 시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중앙과학관은 전국과학관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전시품 재정지원을 비롯한 과학해설사 양성, 자격증 교부 등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이 관장은 “제도적으로 전국에 있는 과학관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협력을 도출해 내는데 중앙과학관이 리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관장은 “과학관의 국제협력을 위해서도 한국의 대표 과학관으로서 중앙과학관이 과학관 글로벌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9월에는 세계과학관센터 컨퍼런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며, 우리나라를 대표해 이 관장이 한국의 과학관 현황과 한국의 과학 대중화 위상을 알릴 계획이다.

#### 내년부터 상설전시관 전면 리모델링 계획

최근 이 관장에게 또 하나의 미션이 생겼다. 중앙과학관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이다. 1990년 과학관 개관 이후 21년째 상설전시관에 전시품들을 부분적으로 교체해 왔지만, 최근 들어 한계에 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에 따라 내년부터 상설전시관의 전면 리모델링 작업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을 펼치려 하고 있다.

이 관장의 현재 리모델링 복안으로는 상설전시관에 유아를 위한 유아과학체험관을 설치하고, 중앙 공간의 이용 효율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노후된 관람객 편의시설도 대폭 현대화할 방침이다. 필요 예산으로 4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관장은 3~4년 계획을 갖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장은 “창의나래관과 함께 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세계 일류 과학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한국 과학관의 위상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도록 관장으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ST**

#### 이은우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은우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경주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기계공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관장은 1983년 이후 원자력개발과·기술협력총괄과·기술협력과·연구개발기획과·대통령 비서실 파견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며 과학기술 행정력을 키워 왔다.

이 관장은 대통령비서실과 과학기술기반국장, 연구조정총괄담당관, 교과부 국제협력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과학기술 관료 출신이다. 지난 2004년에는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현장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인품이 온화한 덕분에 과학기술계 인맥도 두텁다.

##### ◇ 경력

- 1983년 6월~1995년 5월 과학기술부 기계사무관(원자력개발과, 기술협력총괄과 등)
- 1995년 5월~2004년 12월 과학기술부 공업서기관(기술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 연구조정총괄담당관 등)
- 2004년 12월~2006년 6월 과학기술부 부이사관(연구조정총괄담당관, 대통령비서실)
- 2006년 7월~2008년 3월 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장관비서실장, 과학기술기반국장 등)
- 2008년 3월~201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
- 2010년 4월~현재 국립중앙과학관장, 한국과학관협회장,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위원장